

정책네트워크 **내일** 보도자료

보도일시: 배포시

문 의: 『정책네트워크 내일』

02-704-0518 / 010-4789-7485(홍석빈) / www.policynetwork.or.kr

『국정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』 정책토론회 개최

- 『정책네트워크 내일』과 안철수 의원실이 공동으로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. 이하 관련 내용을 토대로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.

- 주제: 【국정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】
 - 부제: 국가정보원 재정립을 위한 개혁방안 모색 -
- 일시: 2013년 7월 8일(월) 오전 10시
- 장소: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
- 주최: 정책네트워크 내일/국회의원 안철수

■ 기초발제 및 토론

- 발제: 『새로운 국가정보기관의 미래상 정립과 개혁방안』,
이석범(변호사, 전 국가정보원 법제관)

- 토론: 이상돈(중앙대 명예교수)
이봉조(극동대 교수, 전 통일부 차관)
이태호(참여연대 사무처장)
송기춘(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- 사회: 정연순(변호사)

발제 요지:

-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고 기밀을 누설하는 국기문란 사건이 발생함.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성찰이 필요
-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의 정보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의 핵심으로 작용해 옴. 대통령 1인에 대한 책임과 밀행성(密行性)으로 인해 권력 오남용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. 실제 과거 국가정보기관였던 중앙정보부는 민·관·군을 대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오남용 해 옴. 관행과 타성은 지속되어 왔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국정원 직무범위 규정이 민주화 이전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유지되어 옴. 민주화 이후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시도(▲ 김영삼 정부의 국가안전기획부법 제9조(정치관여 금지), 제11조(직권남용 금지), 제12조(예산회계), 제13조(국회에서의 증언) 조항 세분화 및 제18조(정치관여죄) 및 제20조(직권남용죄) 신설 ▲ 노무현 정부의 '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'조사 등)가 있었으나, 태생적 한계를 지닌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채 결국 최근 사태에 이르

게 됨.

-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기대와 달리 ▲ 광범위한 불법사찰 ▲ 주요 정보수집 실패(2011년 3월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잠입 발각 등) ▲ 인권 침해적 수사 ▲ 국회 정보위의 통제 실패 등 오히려 개혁에 역행하는 모습을 노정함.

- 향후 국가정보원의 개혁의 큰 방향은 ▲ 안보와 국익에 헌신하는 순수 전문정보기관상 정립이 필요하며, 특히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군사안보 분야 외 경제사회안보, 생태안보, 사이버안보, 인간(人間)안보(대테러, 마약, 에너지, 재해) 등 국익수호의 업무영역 확대가 국민의 실생활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신뢰 회복이 중요 ▲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선도국가의 역할 보좌에 맞춰져야 할 것임.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정치·경제·군사안보질서 변화흐름에 대한 기민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함.

- 구체적인 개혁방안으로는 ▲ (가칭) '통일해외정보원' 으로 명칭 변경 ▲ 수사권 분리를 통한 순수정보기관화 ▲ 국내정치 개입의 제도적 차단 ▲ 해외, 대북 정보부문과 국내 정보부문의 분리에 대한 효율성, 효과성 차원의 검토 ▲ 기획 및 조정권한의 NSC 이관 ▲ 의회의 통제 및 감사기능 강화 등을 제안함.

진행 순서

09:30~10:00	등록	
10:00~10:05	개회사 국민의례	
10:05~10:10	내빈 소개	
10:10~10:20	인사말 축사	안철수(국회의원) 신기남(국회국정원정치개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)
10:20~10:50	발제(30분)	이석범(변호사, 전 국가정보원 법제관)
10:50~11:30	토론(각10분)	사회: 정연순(변호사) 이상돈(중앙대 명예교수) 이봉조(극동대 교수, 전 통일부 차관) 이태호(참여연대 사무처장) 송기춘(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11:30~11:40	청중 질의	
11:40~11:55	종합 토론	
12:00	폐회	

- ★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따뜻한 변화!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후원해 주십시오.
홈페이지(www.policynetwork.or.kr)에서 ‘후원하기’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.

정책네트워크 내일

(우) 121-71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707호

<http://www.policynetwork.or.kr> · 02-704-0518 · 010-4789-7485